

새희망의 길

새희망의 길
VOL.26

Proactive
Intelligence
Communication
TOP SPEED
TOP Service
TOP Security

kt-IMC

ingle kt

기획특집
7박 8일의 UCC 글로벌 봉사활동

공감코칭
2030의 힐링을 위한 특별이벤트
'칭춘氣UP 토크콘서트'

현장24시
네트워크관제센터 Cyber Security팀
마이스터 배준환 조합원

KTTU 리서치
1등 T-커머스, K쇼핑이 주도한다

삶을 바꾸는 휴식의 힘

“저는 심지어 기계에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죠.
 성공의 마침표 앞엔 언제나 성공을 위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미국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달려 왔는지 모릅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길가에 핀 꽃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볼 수 없습니다.
 삶은 쉽없이 달려가 결국에 닿아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내딛는 길 위의 여정입니다.

낮선 곳으로의 여행이 설레는 이유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애정을 쏟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 헤민스님의 말처럼
 잠시 머무르는 동안 발견하는 기쁨들로 가득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오래도록 바라보는 일, 바로 휴식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일.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재정비입니다.



C o n t e n t s

vol. 26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7박 8일의 UCC 글로벌 봉사활동
공감코칭	12	2030의 힐링을 위한 특별이벤트 '청춘氣UP 토크콘서트'
이슈 & 사회	14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모저모
현장24시	16	네트워크관제센터 Cyber Security팀 마이스터 배준환 조합원
KTTU 카툰	20	2016년 노동조합 중점 추진사업
KTTU 클로즈업	22	동해안 최북단 마을의 파수꾼, KT 고을소리
KTTU 레이더	24	스트레스를 날리는 세대별 취미열전
KTTU 리서치	26	1등 T-커머스, K쇼핑이 주도한다
길따라 멋따라	30	일상에 지친 배우자를 위한 위로와 휴식 여행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KT 대리점 개설 제도 시행, 실근속기간 10년 이상 임직원 대상

KT노동조합과 회사는 대리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임직원에게 운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T 대리점 개설 제도를 노사간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 선발 및 운영 프로세스
 - 모집공고/접수 → 1차심사/선발 → 교육훈련(3개월) → 2차심사/선발 → 대리점 개설/운영(1년, 휴직) → 복귀 또는 지속운영
 - 2차선발 후 1년간 휴직 상태로 대리점 개설/운영 (대리점 창업지원 휴직)
 - 휴직종료 후 본인희망에 따라 의원면직 후 지속 운영 또는 원소속 복귀 가능
- 모집요강
 - 지원자격 : 실근속기간 10년 이상 임직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직급이 과장급 이상인 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휴직, 교육파견 등 제외)
 - 교육 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지원방법 : 지원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심사기준 : 영업력(영업경험 포함) + 사업계획 + 영업의지 등
 - 심사방법 : 2차에 걸친 역량 검증 후 최종 선발
 - 1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면접을 통해 1차 선발
 - 2차 : 1차 선발자限 교육훈련 3개월 후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면접
- 추진일정
 - 모집공고/지원접수 : 2016.07.25(월) ~ 08.05(금) 18:00까지
 - 1차 심사 및 선발 : 2016.08.08(월) ~ 08.18(목)
 - 1차 선발자 발표 : 2016.08.19(금)
 - 교육훈련(M&S재적전출) : 2016년 8월말 ~ 11월말
 - 2차 심사 및 최종선발 : 2016년 11월말
 - 대리점 개설 및 운영(휴직) : 2016년 12월초 ~
- 문의처 : ktstore-apply@kt.com

2016 하반기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KT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5일(월), 본사 KBN 방송실에서 조합원 초등

자녀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210명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에는 노사 각 2명씩, 노동조합 차원규 정책실장, 홍정성 복지국장과 회사측 이원준 인사기획담당, 김무성 경영지원담당 상무가 참여했으며, 13개 기관별 박스추첨을 통해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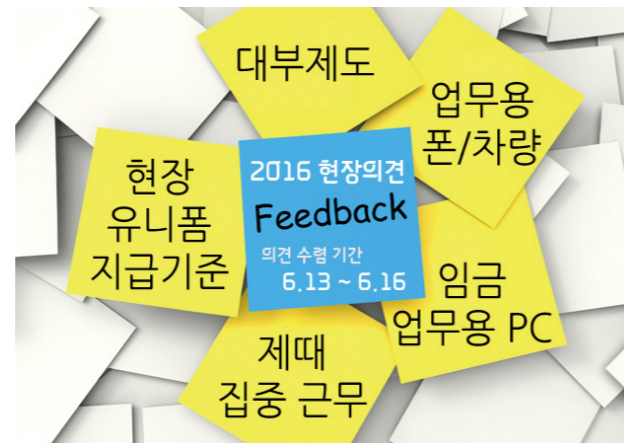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조합원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이며, 교육지원 대상은 초등 4, 5, 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이다. 2016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자녀 화상영어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속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총 210명의 학생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화상 영어교육이 진행되며,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한편, 2016년 하반기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지원 대상자 및 예비 후보자 추천과정은 Kate 전자게시판 및 KBN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 선정자(4, 5, 6학년 각 70명)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자료실 [문서/정책] 참고

2016년 조합원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 피드백



KT노동조합은 지난 6월에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7월 20일(수) 현장 조합원에게 공지 했다.

- 주요 내용
 - 활동내용 : 현장 밀착형 간담회 실시
 - 활동기간 : 2016. 6.13(월) ~ 6.16(목), 4일간
 - 목적사항 : 노사협의회 안건 및 현장 건의/불만사항 의견수렴
- 답변내역 : 총 7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2016년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대회, 운영현황 보고 및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임



KT우리사주조합은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7월 18일(월), KT연구개발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리사주조합 조합장(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김무성)을 비롯한 대의원 150명 중 138명이 참석하여 △ 2015년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 보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이사,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를 소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조직과 우리사주 보유현황 및 지분, 기금현황 등 2015년도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 결산보고와 새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통해 조합기금의 운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총 8명의 이사 후보자와 2명의 감사 후보자 중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투표하여 이사 7명(조합장은 당연직), 감사 2명을 선출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며, 아래는 우리사주조합 임원 당선자 명단이다.

구분	노동조합 측		회사 측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이사	유대중 홍정성 전형집 박충범	지원국장 복지국장 정책1국장 정책2국장	강신현 이원준 조이준	노사협력2담당 인사기획담당 재원기획담당
감사	김호경	재정국장	임정화	윤리경영담당 회계진단팀장

'우리가족 후사랑 휴가시행'

KT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6년 상생협의회 결과에 따라 직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인 '우리가족 후사랑' 휴가를 시행한다.

- 선발인원 : 670명(직원기준)
 - 기관별 인원수 비례, 선발TO 배정(기관별 별도승부)
- ※ 장기간 회사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TO 확대 배정
 - 인원구성 : '직원 1명 + 가족 1명' 또는 '가족 2명' (전액지원)
 - 가족범위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
 - 자녀 등 다른 가족은 본인부담으로 동행 가능(직계가족 限, 최대 2인 이내)

- 동행자의 경우 해외여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식 : 기관별 추천 후 추첨
 - 프로세스 : 추천(TO 3배수) → 추첨(배정 TO)
 - 추천 : 1인 1동료 추천 원칙
 - 추첨 : 기관선정위원회에서 추첨
 - 기관선정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 선발 전(후) 과정 업무 수행

※ 추천예시 : '孝' 및 '가족사랑 실천' 등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직원

베트남(A)	베트남(B)	태국	중국(A)	중국(B)	국내
다낭	하노이, 하롱베이	방콕, 파타야	장가계	북경, 만리장성	제주도

■ 대상지역 : 해외 5곳 + 국내 1곳

2016년 사무집기(책상, 의자, 개인 사물함 등)류 대개체 추진

KT노동조합은 현장 사무환경 개선과 노후화된 사무집기로 인한 조합원 근로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무집기류 대개체를 추진한다.

- 추진 배경
 - 현장 사무환경 중 책상, 의자 등 집기 노후화에 대한 직원 불편
 - 매년 부서별/기관별 소규모 재원 투입으로 개선효과 미흡
- 추진 경과
 - 전사 노후 사무집기 조사 및 노사 합동 점검 시행 : 5월
 - 사무집기 품질/가격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입찰 수행 : 6월
- 사무집기류 주요 개선사항
 - 책상 : 모니터 받침대 제외 및 노트북과 일반서류 보관함 개선
 - 사물함 : 한 칸당 치수 확대 및 시간장치 개선 등
- 기관별 배정 및 선정기준
 - 배정기준 : C부문/N부문 직원 수 비례산출, 기타 : 사업부서
 - 선정기준
 - ① 사무집기 노후도
 - ② 사옥 내 근무인원 고려
- ※ 부문별 교체기관 선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 향후 일정
 - 부문/기관 교체 대상부서 조사 및 선정 : 7.11 ~ 7.15
 - 교체 대상기관 가구배치, 공사일정 협의(기관별 순차적 시행) : 7.18 ~ 8.5
 - 가구 교체작업 시행(전기, 랜공사 일괄수행) : 주말, 야간 작업 : 8.1 ~ 8.31
- ※ 대개체 사무집기류 주요 개선사항 등 세부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참고

2016년 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노사 간 공동 참여로 기업 내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

KT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7일(목)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2016년 KT 및 그룹사 안전 보건담당 등 총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장 내 안전업무 담당자들의 교류를 통한 업무 네트워크

를 확대하고, 노사 간의 공동행사 참여로 기업 내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
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다.

홍정성 산업안전국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를 보
면 공통점이 보인다”고 밝힌 뒤 “자신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라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관련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
는 실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이어 “교육만 받
는 대회를 탈피하여 안전보건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
우고 경험하여 강한 집중호우가 예고된 올 여름을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
자”고 독려했다. 대회는 축사/격려사에 이어 △무재해 결의문 순서 △국
내 산업안전 동향 및 이슈를 전달하는 외부기관 특강 △스트레스 이해
와 관리에 관한 심리상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중부고용 노
동청장의 2016년 정부 노동정책 및 방향이라는 주제 중심으로 특별 강
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노동조합과 회사는 재해감소를 위해 다각도의 안전, 보건 사업 활
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실사로 안
전사고에 대한 의식고취와 재해관리시스템 정비를 지속해갈 계획이다.

노사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노사합동 실태조사 시행

KT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상생협의회 등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추진

- 추진일정 : 2016. 7.11(월) ~ 7.14(목)
- 조사지역 : 전국 12개 지방본부 산하 임의 지부(5개조 파견)
- 중점 조사내용
 -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 현장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 현황
 - 오거, 버킷차량 등 특수차량 운영실태
 - 방진마스크 지급 현황
 - 휴일근무 및 제때 집중적으로 일하는 근무문화 현황
 - 가족사랑의 날 운영 현황
 - 조합원 현장의견 청취(사택, VOC, 업무용 PC 등)
- 향후계획 : 노사합동 실태조사 이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 수립

현장근무 조합원 여름용 비품 제공

여름용 비품 제공

현장 근무자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배송
선크림, 쿨토시, 쿨타올

<지급대상>
CM팀(고객선로유지보수), CS컨설팅팀,
Biz지원팀(전용회선 개통 A/S),
도서무선통신팀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6년 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의결(2016. 6. 29)
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여름용 비품을
제공한다.

- 지급품목 : 3종 (선크림, 쿨토시, 쿨타올)
- 지급대상 : CM팀(고객선로유지보수), CS컨설팅팀, Biz지원팀(전용회
선 개통A/S), 도서무선통신팀
- 지급일자 : 2016. 7. 18 ~ 택배발송 (지역별 지급물품 받는날 상이함)

2016년 하반기 복지포인트 지급

- 하반기 복지포인트 지급
- 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상무보 이하 전직원(청원경찰, 전문경력
직 포함)
 - 일반계약직, 파견계약직, 재직전입, 창업지원휴직자, 무급휴직자 제외
- 지급일자 : 2016. 7. 6(수), 14시 이후
- ※ 복지포인트는 지급일 이후 3년 이내 사용가능
-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031-727-4037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등 한 목소리로 외쳐



KT노동조합은 6월 30일(목)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
쇄! 노동기본권 사수! 불법 정부지침 분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에 참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결의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KT노동조합 상근간부들은 다
른 참가자들과 함께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성토했으며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뒤 “
그러나 구조조정 대책을 책임지고 맡아야 할 정부와 대기업 오너의 책임
은 가려진 채 노동자에게만 대량감원과 임금삭감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의 동결주장과 정부의 방
치 속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과 마주한 지금이
야 말로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되며 위기 타개를 위해 조

직적인 연대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생명·안전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최저임금 1만
원권 쟁취를 통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대와 단
결을 공고히 하며, △현장의 임단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양대 지침 무력
화와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
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논의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조정 과정에
서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
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2분기 노사협의회, 강제용품 지급기준 개선 및 대리점 개설제도 도입 등 의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29일(수) 분당사옥 17층 회의실에서 2016년
2/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강제용품 지급기준 개선 등 노동조합이
요구한 안건 7개, 회사측 요구 안건 1개 등 총 8개 안건에 대해 협의·의
결했다.

노사는 먼저 2016년 5월의 경영실적과 2/4분기 지방 노사협의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협의회 결과 ▲강제용품 지급기준(외가포함) 개선 ▲C직 유형
(A형→B형)변경 시행 등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2016
년 7월 1일부터는 외조부도 사망 시에도 강제용품(400人用)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조합원 여름용 비품 제공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작업에 꼭
필요한 물품(선크림/쿨토시/쿨타올)을 제공하기로 했고, ▲버킷차량 추가
지급은 수요조사 후 필요기관에 대해 다음 연도부터 순차지급을, ▲C부
문 투자예산(설비이전 및 직영공사 물자비) 적기 지급은 민원접수건 검토
후 하반기 적기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업무상 필요한 S/W(한컴오피스 등) 적시 지급과 관련해서는 업
무상 사용빈도가 높은 조합원이 신청할 때 적기 지급하기로 했고, ▲임
직원 대리점 개설제도 시범 도입도 협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속 10년
이상의 과장 직급 이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대리점 창업지원휴직”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휴직기간과 대리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
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기금 대부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노사 간 좀 더 충분한 검
토를 진행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2016년 2/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및 관련 합의서는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2016년 하계 조합원(가족포함) 안과/치과 의료행사

조합원의 복지후생 사업의 목적으로 안과/치과 전문병원과 협약을 통해
하계기간 동안 의료행사를 추진하오니, 관심이 있는 조합원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07.04(월) ~ 07.30(토) 18시까지
- 행사기간 : 접수 후 ~ 2016년 8월 31일
- 신청대상 : 임직원 및 가족(계약직 포함)
- 신청방법 : kt2879@naver.com 메일로 신청
 - 메일 원본에 소속, 진료과목, 행사항목, 시술자성명, 나이, 연락처, 회
망점 작성 송부
 - 메일 접수 후 병원에서 개인별로 전화하여 개별 일정 예약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2016 정기 대의원대회



■ 정 위원장 “연맹의 발전과 단결, 권익강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윤모, 이하 IT연맹)은 6월 28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
보고 및 예·결산 승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윤모 IT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재 우리 회원조합 중에도 불
합리하고 편향된 노동제도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
다”고 말한 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연맹이 똘똘 뭉쳐 일방적인 자본과
정권의 행태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발 빠르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을 IT연맹 재도약의 해로 만들자”
정 위원장은 이어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연맹, 행동하고 실
천하는 연맹이 되어 단호한 의지로 노동현안들을 토의하고 연맹의 권익
쟁취와 발전방향을 수립해 2016년을 IT연맹 재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지”
고 결의를 모았다.

이날 대회는 총 168명의 대의원 중 135명이 참석해 성원 된 가운데 ▲
2015년 사업연도 사업보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6년 사
업연도 사업계획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원안대
로 가결했다.

한편 IT연맹은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건설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ICT 노동
자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대회선언문을 발표하고 단
위노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 함께 나눌수록 행복이 충만해져요!

7박 8일의 UCC 글로벌 봉사활동 후기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다.' 오래 전,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서로 연관을 맺고 수 많은 타인과 내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굴러가지요. 지금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우연 혹은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스치듯 지나간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예정되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먼 길을 돌고 돌아 새삼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미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봉사 통해 정서적 포만과 긍정적 변화 체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웬티 쨌'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보통 발음하기 쉽게 '쨌'이라고 부르죠. 저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의 서강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유학생이에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민망하지만, 저는 베트남인임에도 한국어를 꽤 잘하는 덕분에 이번 UCC 글로벌 봉사활동의 현지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UCC측에서 통역 제의가 왔을 땐 예의 그릇듯, 의뢰인들 옆에 조용히 앉아 소통의 가고 역할만 잘 해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통역 외에도 베트남 가족 분들 따라 땡벌의 하노이 투어를 다녀야죠, 상봉장을 증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꼬마 악동들 챙겨야죠. 화상상봉 대화 내용을 한국어로 써달라는 기자님들 요청에 손가락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 게다가 일손이 딸리는 행사장에 직접 플래카드도 붙이고 물품도 정리해야죠. 아휴,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시간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던지, 지난 7박 8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UCC의 통역 봉사를 안 할거냐고요? 천만예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참여할 생각입니다. 어느 작가님 표현을 흉내 내 보자면, ' 좋게도, 나쁘게도, 모든 것은 좋았기 때문이죠. 제가 UCC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칠 일 없을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참여로 저는 한국의 귀여운 동생들, 오빠, 언니 같이 따뜻한 분들과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살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에도 적절한 힌트를 얻었으니 남는 장사일수 밖예요. 이걸 또 무슨 얘기냐고요? 혹시 '헬퍼스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헬퍼스 하이란 조건 없이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고도의 행복감을 말합니다. 단순히 정서적 포만감만 느끼는게 아니라 나눔·봉사활동 등을 통해 남을 돕는 사람에게는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봉사를 함으로써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하락, 엔도르핀은 정상치의 3배 이상 상승, 타액 속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항체(Ig A) 상승 등 건강에 좋은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UCC 봉사활동 통역 '응웬티 쨌'

KT의 첨단 IT기술

베트남 가족과 현지 언론의 뜨거운 호응 받아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화상상봉과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을 경험한 베트남 가족 분들이 다들 매우 좋아하셨다는 점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선생님들의 무상진료와 상비약 제공에 만족하신 것은 물론, 드론 조정, 3D 프린터로 미니어처 제작하기, 헬스바이크 타기, VR컨텐츠 감상 등 KT의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IT체험과 한국 전통놀





이 체험에 가족들이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꼬마들은 드론 조정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삼매경에 빠졌고요. 부모님과 이모, 삼촌들도 VR컨텐츠를 감상하면서 장난스러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웃놀이를 할 때에도 폭소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가족들과 하노이 시내투어를 갔을 때의 일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간 '레티손'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베트남에 살면서 하노이 구경을 처음 하게 되어 무척 감격스럽다"고 하셨어요. 시내 투어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화상 상봉 때 딸 부부에게 '너희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셨는지 제 어깨가 다 으쓱거릴 정도였습니다. UCC의 봉사활동은 가족들뿐 아니라 이곳 베트남의 국민과 언론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땐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라며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5년째 꾸준히 이어온 활동을 보면서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이제는 현지에서 먼저 봉사단을 반길뿐더러 정부나 지역의 협조도 높아졌으니 진심은 다 통하게 마련인가 봅니다.

한국-베트남 화합의 밤
따뜻한 음식으로 나누는 끈끈한 유대

특히 봉사 마지막 날 개최한 '한국·베트남 가족 화합의 밤' 행사를 잊을 수 없겠네요. 행사는 봉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에서 부터 날아온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님과 KT노사임원,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의 이혁 대사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춘미 위원장님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해 그야말로 대성황이었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최현석, 오세득이라는 한국의 유명 셰프가 벌인 '요리 나눔'이었습니다. 최현석, 오세득 두 셰프가 참여해 베트남 현지가족 및 교민들과 같이 양국의 전통요리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 일종의 경연의 장이 펼쳐진 건데요. 이번 일로 두 분에게 무한 감동을 받게 된 일화를 살짝 알려 드릴게요. 이날의 행사를 위해 두 셰프는 사실 현지 마트에 250인분의 음식 재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착오가 생겨 그만 재료가 고작 30인분 정도만 배달되었지 뭐니까. 정말 큰일이 난거죠. 부랴 부랴 급하게 다시 재료를 주문했지만 요리에 들어갈 고기는 광광 얼려진 채 왔고 양념 또한 셰프들이 원래 요구한 재료와 달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두 셰프는 망연자실, 크게 당황하고 말았죠. 우리 봉사단들도 요리 나눔 행사를 취소해야 하나 싶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프로는 역시 다르더군요. 두 셰프는 행사 세 시간 전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돌덩이처럼 굳은 고기를 일일이 칼로 다져 녹이는 투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손에는 물집까지 잡히면서요. 두 사람의 세 시간여의 노력 끝에 요리 재료는 무사히 준비되고 덕분에 한-베 가족들은 유쾌하고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현석, 오세득 셰프가 한 푼의 출연료 없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것 역시 나눌수록 행복이 커지는 자원봉사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사회,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나아가 타인의 처지와 마음까지 헤아릴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UCC글로벌 봉사활동은 저 개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 나눴더니 우리 사회의 행복이 점점 커지고 나의 행복이 점점 차오르는 것. 이 마술 같은 일에 KT조합원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Interview
"노사가 힘을 합침으로써 나눔 활동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임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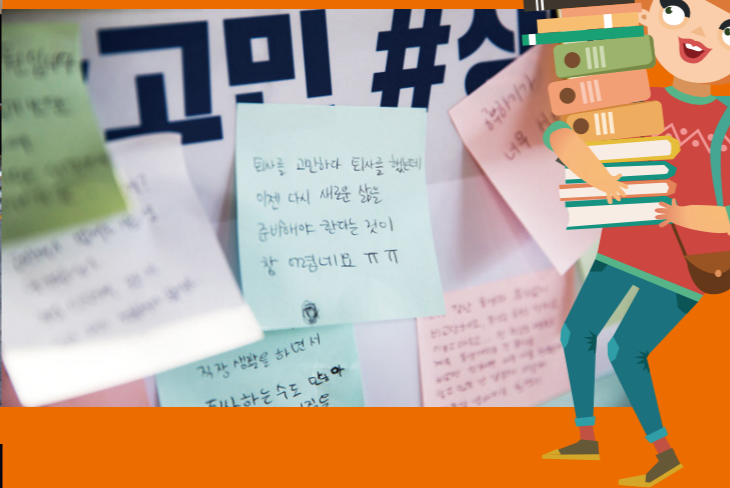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5년간 가정의학과, 소화기내과 등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 의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와 조합원들도 국내 18개 기업 노사가 참여해 만든 나눔을 위한 단체 UCC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화합과 단결을 선도할 순 없겠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양국의 민간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UCC는 베트남-한국 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글로벌 봉사활동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
KT 문화가
있는 날

청춘氣UP 토크콘서트 #청춘해

With 안정환, 옥상달빛



2030의 힐링을 위한 특별이벤트 '청춘氣UP 토크콘서트'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살아야 할 2030세대. 하지만 그들의 앞에 놓인 현실이란 하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의 어려운 취업난이다. 한숨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들에게 KT가 진정한 의미의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다. 젊은이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청춘氣UP 토크콘서트'가 전국을 순회한다.

스타들이 관객의 고민을 들어준다

"뮤지컬 배우가 꿈이에요? 그래요, 당신은 반드시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어요. 연습을 꾸준히 하면 6개월에 한 음씩 고음을 낼 수 있고 음역대 역시 안정되거든요, 파이팅!!" - **락스 밴드**

"그깟 여군에 낙제한 게 무슨 대수인가요? 저 또한 대학에 떨어지고 한동안 방황했는데요, 그것 별거 아니더라고요, 용기 내어 다시 도전해보세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유승우**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타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객들의 기분이 급격히 '업(Up)'된다. 스타와 관객의 구분 없이 격려와 소통이 진하게 오갔던 콘서트홀의 분위기는 폭염마저 녹일 만큼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다. 공연장을 찾은 700여 명의 젊은 관객들은 "스타들이 알려주는 조언 한마디가 가슴속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사이다 같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겨 있던 근심과 스트

스타들이 관객들이 겪는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함으로써 무겁지 않은 진지한 의미의 힐링을 젊은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청춘氣UP 토크콘서트'의 입장료는 단돈 천 원이다. 저렴한 입장료는 대학생과 젊은 관객이 부담 없이 공연장을 찾아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처음 열린 '청춘氣UP 토크콘서트'는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과 가수 옥상달빛이 출연해 관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고민에서 해방되는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첫 공연의 성공은 입소문을 타고 젊은이들에게 빠르게 번져갔다. 지난 4월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두 번째 '청춘氣UP 토크콘서트'는 낮에는 약사로 밤에는 SNS 스타로 활동하는 고퇴경 씨와 실력과 인디밴드 '소심한 오빠들'이 출연했다. 서울에서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거둔 효과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해 단 며칠 만에 입장료가 매진되기도 했다.

세 번째 '청춘氣UP 토크콘서트'는 5월 광주에서 열렸다. 소란과 샘김,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KT 신입사원 김근형 씨가 무대에 올라 중졸의 자신이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에 편입해 KT에 지원하기까지 진솔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며 깊은 공감을 얻었다.

6월 대전 한남대에서 열린 네 번째 '청춘氣UP 토크콘서트'는 1600석 예약이 행사 열흘 전 마감되는 등 일찌감치 대박 조짐을 보였다.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무려 8시간 동안 긴 줄을 선 후야 관객들이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니 이쯤에서 '청춘氣UP 토크콘서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KT가 젊은이들과 진심을 이야기하다

젊은이들과 교감하는 '청춘氣UP 토크콘서트'가 지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스타 오디션'이다. 입사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무대에 올라 즉석으로 KT 입사 시험을 보는 '스타 오디션'은 스펙을 따지거나 정해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끼를 마음껏 보여주는 KT만의 열린 채용방식이다.

KT에 다니는 직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청춘氣UP 토크콘서트'가 지향하는 젊은이들과의 고민 해소와도 맥을 같이한다. 관객들은 유명인이 아닌 바로 나와 같은 평범한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업한 사례를 전해 들음으로써 다음 기획에 성공한 나 자신을 그려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었다.

레스를 날릴 수 있었다"며 다음에 개최될 콘서트에도 다시금 찾아올 것을 약속했다.

지난 7월 27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KT의 주최로 열린 '청춘해(청춘을 응원해)' 콘서트 현장의 풍경이 펍이나 이체롭다.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중간중간에 스타들이 짧은 토크를 펼치는 모습은 어느 콘서트와 비슷하다. 하지만 KT가 주최하는 '청춘氣UP 토크콘서트'의 진면모는 바로 스타들이 관객들을 향해 건네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 그것이라 말할 수 있다.

매월 전국 투어로 인기 대폭발

'청춘氣UP 토크콘서트'란 타이틀로 KT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토크 콘서트 형식을 띤 '청춘氣UP 토크콘서트'는 관객들의 고민 상담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전에 관객들의 고민을 모아



ISSUE & SOCIETY

지구촌이 하나되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모저모

제 31회 하계 올림픽이 2016년 8월 5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지카 바 이러스, 경기장 준공 지연, 치안 불안 등 여러 문제점으로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그간의 우려를 씻은 아름다운 개막식이 펼쳐졌다. 12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 8월 21일까지 17일 간 펼쳐질 한 여름밤의 뜨거운 스포츠 열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리우 올림픽 신설종목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새로운 정식 종목으로 추가됐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 이후 112년 만에 부활한 골프는 한국에겐 반가운 종목이다. 남녀 개인전이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선 총 2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여자 골프는 양궁 만큼

이나 금메달이 유력한 종목이다. 우리나라는 박인비를 비롯해 세계 정상급 선수를 대거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선수들의 금·은·동메달 석권도 기대해 볼만하다. 럭비도 오랜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럭비가 올림픽 종목으로 복귀한 건 1924년 파리 대회 이후 92년 만이다. 럭비는 남녀팀에

계 1개씩 금메달 2개가 할당됐다. 두 종목의 가세로 2008년 베이징 대회와 2012년 런던 대회 때 총 302개(26개 종목)였던 금메달 수가 이번 대회부터는 총 306개(28개 종목)로 늘었다.

사상 첫 난민대표팀

개최국 수도 늘어났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대회에선 나란히 204개국에 참가했다. 그런데 코소보와 남수단이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으로 승인 받으면서, 리우올림픽에선 206개국이 출전했다. 코소보는 205번째, 남수단은 206번째 IOC 회원국이 됐다. 여기에 사상 첫 '난민 대표팀(Team Refugee Olympic Athletes)'까지 가세했다. 난민팀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한 난민 선수들로 꾸려져 IOC의 이름으로 오륜기를 달고 대회에 나섰다. 난민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IOC는 전 세계 모든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난민팀을 만들었다.

KT 소속 선수들의 활약

여자하키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메달에 도전한다. 여자하키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한혜령을 비롯한 5명의 KT 소속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전후반제에서 쿼터제로 바뀐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하키의 투지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한편 KT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사격 및 여자하키 아마추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KT그룹 소속으로는 이번 올림픽에 선수 7명, 코치 1명(차영철 사격팀 감독)이 출전했다.

국가대표 선수단 단복

KT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접목한 운동복을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팀코리아(Team Korea)' 단복에 적용했다. '팀코리아' 단복은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NFC 태그(보안칩)을 내장하고 있다. 선수가 단복의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지니'에 자동 접속돼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KT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과 근



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에 착안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T는 해당 기술을 다양한 스마트 의류에 적용하고, 운동 상태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T 웹툰 '메달브레이커' 공개

KT는 7월 19일 네이버 인기 웹툰 작가 조용석과 함께 제작한 브랜드 웹툰 '메달브레이커'를 공개했다. '메달브레이커'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KT 선수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의문의 전학생 진중오(사격)가 한 고등학교에 전학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KT 스포츠타운 소속 인기 선수들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풍성한 이야기를 꾸려 나갈 예정이다. 7월 19일 첫화를 시작으로 총 12회 매주 네이버 웹툰과 KT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재된다.

KT, 리우데자네이루 360 VR 영상

KT는 360도 VR(가상현실) 영상으로 촬영한 리우데자네이루의 모습을 올레tv 모바일 'VR 전용관'을 통해 제공한다. 브라질 현지 모델 5명으로 구성된 '5G 리포터'가 액션캠, 헬멧캠 등 웨어러블 촬영 기기와 360도 VR 카메라를 부착하고, 리우의 관광 명소인 예수상과 코파카바나 해변 등을 돌며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8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올레tv 모바일 'VR 전용관'에서 볼 수 있다. 올레tv 모바일은 KT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면도 360도 VR 영상으로 제공한다.

GiGAtopia를 향한 1등 관제를 구현하다

네트워크관제센터 Cyber Security팀
마이스터 배준환 조합원

세계 최고의 유·무선 네트워크 관제와 보안관제, 거기에 스마트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통합관리와 IoT 서비스 통합까지. KT의 역량이 이룩한 이 모든 관제의 산실인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는 1년 365일 하루도 쉴 틈이 없다. 네트워크관제센터는 2000년에 시작해 2011년 '통합관제센터'로 발전 최상의 통신망 관리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에너지 관제센터'와 'GiGA IoT스마트 센터'까지 합세, 이제 명실상부한 ICT 융합관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셈인데. KT 관제 역사의 산 증인 마이스터 배준환 조합원과 함께 그 놀랍고 생생한 현장을 둘러봤다.



통신·전원·보안의 요람, 네트워크관제센터

경기도 과천시에 자리한 KT 과천지부 사옥 내에는 '네트워크관제센터'를 비롯해 'KT-MEG센터(에너지 관제센터)' 그리고 최근 개소한 'GiGA IoT 스마트 센터'가 함께 자리한다.

2011년 유·무선 통합관제를 위해 문을 연 네트워크관제센터는 유선과 무선, 보안 등 기존 분야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던 관제센터를 이곳에 모아 전국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한 개의 TFT를 포함 총 열두 팀 223명이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전국 통신망을 감시하는, 네트워크 관제의 요람인 셈이다.

3, 4층 그리고 9층에 자리한 센터 내에서는 교환 및 전송, 인터넷과 무선, 전원 및 보안, 에너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60여종의 실시간 감시시스템 1,400여대가 운용 되고, 특히 전면에는 46인치 LCD 87개로 구성된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네트워크별 전국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

“관제는 네트워크 안전 운용을 위한 철저한 방어가 주목적입니다. 장애와 보안 공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지키는 거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요즘, 장애나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는 전국에 산재된 망과 장비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제어하고 분석하며, 혹 장애가 나면 현장을 지휘해 가장 신속한 백업조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요. 무선과 전송, 보안 등 모든 분야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장비에 대량의 공격이 가해져 대역폭이 초과되면 각각의 서비스에 영향도가 나타나 복구 진행상황 공유 하는 등 상



호 공조대응에 유리한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주·야간별로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트워크관제센터 사이버 보안팀 소속인 배준환 조합원이 보안 관제 업무를 시작한 건 2001년부터다. 96년 입사 후 서울통신망 관리단 소속으로 장거리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인터넷 보안 인력 모집 기회를 통해 보안관제와 인연을 맺었다. 교환이면 교환, 인터넷이면 인터넷만 알던 때와 달리 그의 보안 업무의



시작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보안은 범위가 넓습니다. 영역으로 보자면 네트워크보안, 서버 보안, 단말보안으로 나누죠. 연관된 장비들도 중요하고,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세 가지 모두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폭넓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낮았고 초고속 인터넷이 인기 있던 시절이라 자료를 구하기도 무척 힘들었죠. 3~4년이 지나니 점차 나아지더군요.”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그의 업무는 유선망 관제에서부터 무선관제로 통합 확장되고 이제 IoT관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래는 IoT관제가 활성화되겠죠. IoT에서 나오는 모든 빅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인데, 침해사고를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 확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제영역을 확대해 갈 겁니다.”

‘에너지 관제센터’, ‘GiGA IoT 스마트 센터’와의 시너지 창출

지난 해 12월 개소한 KT-MEG센터(Micro Energy Grid Center, 에너지 관제센터)는 네트워크관제센터 산하에 있다. 이는 ICT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및 거래를 통합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으로,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에너지산업 창업을 촉진하리라는 기대 또한 높이는 곳이다.

“에너지 관제센터는 유·무선 관제 역량과 결합해 센서·네트워

크·서비스로 이어지는 종단 간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 충전 및 수요자원 운영 등 약 3,600여개 사이트를 실시간 통합 관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원격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 솔루션을 추가 통합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에 있어요.”

건물 7층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또 하나의 통합 서비스 센터가 자리하는데, 바로 지난 5월 개소한 ‘GiGA IoT 스마트 센터’다.

이곳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IoT관제를 하나로 통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을 제어하는 곳으로, 화재나 환경 감시, 음식물 종량제나 스마트 토너, 차량관제센터 시스템 등 단말기 및 센서 작동 유무를 실시간으로 조직 내에서 확인한다. 또 기존 KT의 실시간 장애 원인분석과 원격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용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덕분에 KT는 사물인터넷 전용망인 LTE-M의 본격적인 서비스에 대비해 한발 앞서 안정적인 관제 역량을 갖추게 됐다.

배준환 조함원은 “IoT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센터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상의 품질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마이스터’로서 걸어가야 할 길

18명이 일하고 있는 보안 관제팀에서 배 조함원은 가장 오랜 경

력자이자 최고의 기술자다. 그래서 그의 직함 앞에는 최고의 보안 기술자임을 나타내는 ‘마이스터(Meister)’라는 호칭이 따라 붙는다.

그가 3년 전 떠난 이 묵직한 자격은 부여받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네트워크관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만큼 주인공이 요구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비롯되는 결과물은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태도로 돌파구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이스터’라는 직책은 기술적인 부분에 덧붙여 관리자와 직원들 간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덕분에 보안 업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오든, 다른 일을 경험 해보고 싶어서 오든, 새로운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은 그의 차지다.

“조직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주고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부분도 알려주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합니다. 동료들의 기술적 의견을 함께 토론했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고 동료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가족같은 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엔지니어는 기술적인 부분만 좇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연령 격차를 해소할 중간 고리 역할을 할 이가 없다면, 후배들과의 두드러지는 경력 차이는 때로 팀을 자연스럽게 엮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그러기 위해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교육기회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층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보안전문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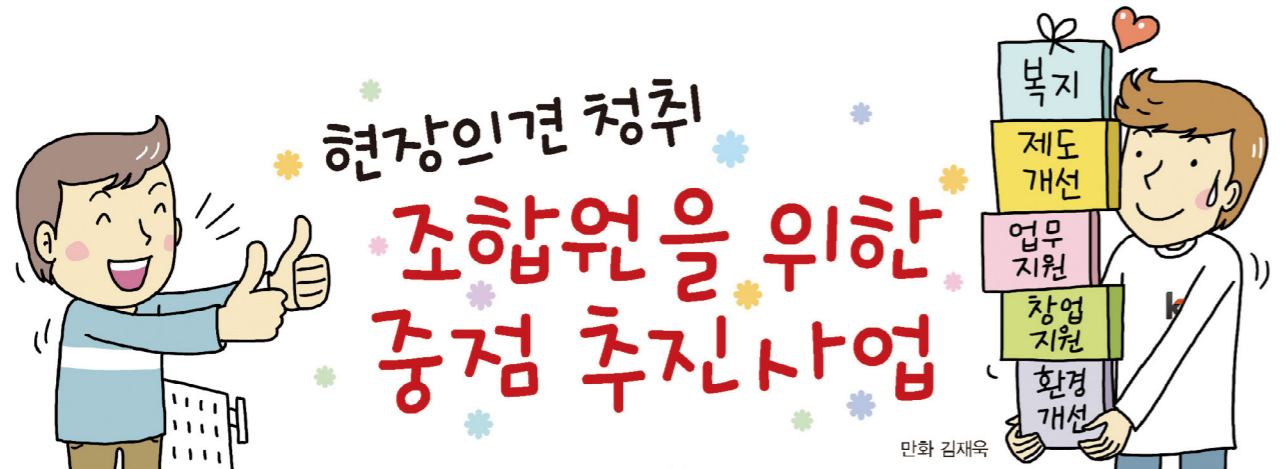
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가줘야 합니다. 멤버가 구성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향상시켜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최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답은 교육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교육을 할 때만이 안에서 맴돌지 않고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생활패턴과 다른 24시간 교대근무로 몸은 늘 피로하고, 항상 대기 상태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나 집중하다 보면 두통이 오는 건 예사다. 대응 판단하고 조치 후 입력해서 의자에서 잠깐 쉬다 해도 귀는 항상 열어놓아야 하는 게 그의 일상이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제 업무는 실력 위에 동료들과의 가족적인 부분이 더해져야 한다고 믿는 그다.

오랜 경험과 탄탄한 실력, 거기에 인간적인 온기로 무장한 마이스터 배준환.

최상의 통신망 관리로 장애 없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KT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동조합은 올해 조합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기를 짝 살려주는 활동과 함께 노사합의사항 이행 강제 등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여 조합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조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취합한 내용을 반영하고, 공약사항인 노사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합니다.

조합원 기살리기와 창업기회 부여

1.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가족사랑 프로그램) 제도

- 부모님 효를 통한 가족사랑 실천 취지
- 총 선발인원 670명 / 기관별 인원수 비례 TO 배정
- 각 기관별 동료가 추천 후 선정위원회(기관별노사동수구생)가 추천
- 부모/배우자/가족 동반, 국내외 여행지(6곳)로 2인 휴가비 전액 지원
- 2016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 1회씩 5차례 시행

2. KT 대리점 개설 제도

- 10년 이상 근속자 대상, 대리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기회 제공
- 교육훈련(3개월) 후 대리점 창업 지원, 휴직(1년) 기간 동안 대리점 운영
 - ▶ 1년간 의무휴직 ▶ 휴직일로부터 6개월간 급여 일부 지급 / 이후 기간은 무급 휴직
 -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복귀 시 원소속 복귀 원칙
 - ▶ 유급 휴직기간은 재직자와 동일한 복지 지원
 - ▶ 휴직기간 중 대리점 발생 영업이익은 본인에게 귀속
 - ▶ 대리점 개설-운영(휴직발령) : 2016년 12월 초부터

복지 관련

1. 사무환경 개선

- ①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 추진
 - 구내식당, 샤워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단계적 환경개선 추진
 - KT사옥 55개 빌딩 대상으로 LED 교체, 불당시설 교체, 천정/바닥/벽면 도색 및 수리
- ② 사무집기류 대개체 추진
 - 노후된 집기류로 인한 조합원 불편해소 차원
 - 오래된 의자, 책상, 개인사무함 대개체
- ③ 거점사옥 단계적 빌딩 리모델링 진행중

2. 수련관 개선 추진

- 조합원이 하계 휴가기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보수
- 2016년 7월초~15일까지 4개 수련관 객실정비, 환경개선 등 리모델링 추진

3. KT스포츠단 경기관람 지원

- 야구장 입장권 지원 : kate - My cafe - KT Wiz 응원신청에서 부서단위 신청
- KT워즈 야구단 T셔츠 지급은 회사측에 요구, 협의를 진행중

제도개선 및 기타 프로세스 등 개선

1. 현장 업무용 작업차량 관련

- ① 오거크레인 차량 지급 및 고정장치 보완 검토
 - 소요차량 수요조사 후 신속공급 등 작동방법 교육 병행
- ② 버켓차량 추가 지급
 - 조합원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수요조사 후 필요기관에 대하여 순차적 지급

4. 장제용품 지급 개선

- 2016. 7. 1부터 외조부모 사망 시에도 400인용 장제용품 지급

5.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지급계획

-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반영, 업무용 다이어리 외에 수첩도 추가 지급

3. CS직군 관련

- ① C직 유형 변경(A형:기술 → B형:영업) 세부시행(안) 마련 후 시행
 - 시행시기와 변경 인원규모를 협의중
- ② 업무상 재해(안전사고)에 따른 급여 피해 최소화
 - 관련 방안을 회사측과 협의 진행중

4. 현장 최일선 조합원에게 여름용품/방진마스크 제공

- 현장 작업시 꼭 필요한 선크림, 쿨도시, 쿨타올 지급

5. ERP 구매방식 개선(물자구매 시 진행단계 단축)

6. VOC 접수 개선 및 개통AS CSI 측정 척도 개선

7. 업무상 필요한 S/W의 사용빈도가 높은 조합원이 신청 시 적기 지급

노동조합은 올해 조합원 만족도 제고에 초점을 두고 현장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2016년 승리하는 단체교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단체교섭 안전 의견수렴 : 8/9 ~ 8/12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8/12 ~ 8/19

KT 노동조합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달려갑니다!



왼쪽부터 속초지부 박광호 지부장, 강릉Biz영업 2팀 지동식 팀장, 지동환 조합원, 이옥선 조합원

동해안 최북단 마을의 파수꾼, 'KT 고을소리'

고성군 명파리, 디지털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자리한 명파마을. 동해안 최북단이라는 지리적 특성 상 주민긴급대피방송이 절실한 이곳에 KT의 무선방송시스템 '고을소리'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말. 깨끗한 음질과 편리성으로 재난긴급경보는 물론 주민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의 현장을 찾아갔다.

지역에 최적화된 무선방송시스템

“휴전선이 무너지면 속초가 무너지고, 속초가 무너지면 강원지방이 무너집니다.” 고성군 명파마을의 'KT고을소리' 수주와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던 강원고객본부 강릉Biz영업부 Biz영업2팀 지동환 조합원은 소개부터 남달랐다. 그 비장한 첫 마디를 그저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 속초, 고성, 양양 세 지역을 관할하는 팀, 그 중에 지동환 조합원이 맡고 있는 고성군 명파리 지역으로 말하자면 2014년 6월 21일 최전방 육군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병사 다섯 명이 살해되고 7명이 다친 일명 임 병장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곳이다. 당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긴급 상황이 이어졌지만, 마을에서 떨어진 외지 주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마을회관의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형편이었다.

이런 불편함을 감지한 지동환 조합원은 이후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고성군과 함께 '주민대피 통신시설 무선방송장치 구축사업'을 추진해 명파리에 'KT고을소리'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비상사태 시 이장이 마을회관에 가서 직접 마이크를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해졌죠. 명파리의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무선방송시스템을 선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명파리에는 현재 마을회관 내 무선마을방송 송신기와 총 136가구에 가정용 무선수신기가 설치돼 있다. 기존에는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는데, 마을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집까지는 방송이 잘 들리지 않아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각 가구마다 문을 닫고 TV를 시청할 때, 또 잠이 든 야간에는 정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방송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디자인까지 고려한 안전시스템

“KT고을소리”는 디지털무선방식이라 거리에 관계없이 통신이 가능한 구역 내에서는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도 외부 안테나가 설치돼 있고 비상용 외에도 마을방송이나 농작물 절도 등의 홍보방송, 행정공지방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요. 전체방송과 그룹방송 등으로 기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걱정도 했습니다. 워낙 먼 지역에 구축했고 비상 상황 시 고장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고장 없이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각 가정에서 보급된 무선수신기는 디자인 면에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청사초롱 형태의 LED타워형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까지 된 무선수신기는 긴급방송 전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조명 스탠드로 사용된다. 재난 긴급경보 기능은 디지털무선방송시스템이 긴급방송모드로 방송을 실시하면, 각 가구의 무선수신기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등이 점멸하는 등 비상기능을 수행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다. 혹시 부재중이거나 실시간 방송을 듣지 못했다 해도 걱정 없다. 자동 녹음기능이 있어 재생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재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로사항이라면 야간에도 무선수신기에 전원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어르신들 중 일부는 전기요금을 걱정해 가끔 스위치를 빼 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전기요금이라야 한 달에 150원 정도가 전부인데도 어르신들은 아끼는 습관 때문에 전원을 끄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죠.”

'KT고을소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ICT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실증사업'에 정보전달체계 개선과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인프라로서 채택되기도 했다. 지동환 조합원은 “명파리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돼 보람을 느낀다”며, 명파리의 사례를 통해 많은 업체들이 속초지부를 방문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송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 한층 뚝 소리 나는 'KT고을소리'의 역할이 기대된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세대별 취미열전



얼마 전 어느 취업포털 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80%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퇴근 후 즐기는 직장인들의 취미는 운동이 가장 많았으며 독서와 여행, 외국어 공부도 뒤를 이었다. 최근 직장인들의 취미생활에 전에 없던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유행과 특이함을 추구하는 독특한 취미생활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쿠킹 클래스'

예전만 해도 부엌은 금남의 영역이었다. '고추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남자들은 부엌 주변에 얼씬도 못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요리 프로그램이 인방극장을 점령하면서 요리는 누구든지 관심 갖는 소재가 되었고, 또 누구든지 '나 그 요리 만들 줄 알아요'라고 뽐기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 이미 시내는 물론 집 주변에까지 요리학원이 두루 자리 잡고 있으니 시간이 남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집 주변 요리학원을 찾아가고, 주중에는 퇴근 후 회사 주변의 쿠킹 클래스를 찾아 요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40대 이상에게 추천하는 등산 & 트레킹

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굳이 회사에서 단체로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상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서 산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산은 취미 이전에 현대인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되었다. 매일 얼굴 보는 직장 동료들과 산에서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비슷한 또래나 직종, 지역 별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과 함께 등산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등산은 모든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지만 경치를 느끼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40대 이상 되었을 때 그 감격이 더욱 커지는 법이다.

2030의 느슨한 공동체 모임, 북클럽

여러 콘셉트와 분위기를 간직한 다양한 카페가 생기면서 북카페 또한 붐이 일고 있다. 독립된 회의실을 제공하는 북카페는 일찍이 독서토론회나 글쓰기 모임의 단골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독서클럽이나



글쓰기 모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그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주로 40대 이상에서 시 낭송이나 독서모임 등 교양을 위주로 운영되어 온 모임과 달리 2030을 중심으로 나만의 독창적인 사유와 표현을 발휘하고 싶은 소위 감성 깊은 SNS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임에는 나이와 이름, 직업 등 일체의 신변잡기를 묻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글쓰기 소모임은 부담스런 형식에서 탈피해 느슨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젊은 2030 및 대학생을 위주로 늘어나는 추세다.

3040 커리어 워먼의 교양 쌓기, 악기 연주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악기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귀족적(?)인 악기가 아니라도 기타나 리코더 등 비교적 간소한 악기 정도는 음악수업에서 다들 경험해봤을 것이다. 어릴 때는 정작 느끼지 못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니 악기를 다시금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피어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악기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악기 연주는 그 자체만으로 현대인들의 고단한 심리를 정화시켜주고 예술적 감수성을 불어넣는 최고의 명약이다. 기타나 피아노 등 흔한 악기는 물론 사물놀이 등과 같은 전통악기와 우쿨렐레, 하모니카, 하프, 봉고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도 있다. 악기 연주는 최근 3040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40대 꽃중년의 감수성을 화폭에, 그림그리기

미술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취미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심리치료의 효과를 얻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며, 광고나 예술 분야 등 콘텐츠 기획 종사자들에게 직업적 영감을 불어넣는 데 독특한 힘을 발휘한다. 미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도움이 되는 취미이며 악기연주와 더불어 미적 교양을 채울 수 있는 매우 요긴한 아이템이다. 규모가 큰 회사에선 그림그리기 동호회가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과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찾아 가입해 활동하면 된다. 악기연주가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면 그림그리기는 최근 40대 이후 남성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2030은 아이돌댄스, 5060은 탱고와 왈츠를

흔히 '춤' 하면 남녀가 함께 몸을 밀착해 역동적인 동작을 구사하는 스포츠댄스를 떠올리기 쉽다. 물론 격한 춤일수록 바라보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자극하고, 추는 사람 역시 희열이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춤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동작을 소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대세인 아이돌 댄스를 배우려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 반면,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중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탱고나 왈츠도 각광받고 있다. 춤을 배우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댄스학원을 다녀야 하지만 최근 들어 무도장이 많이 들어서는 추세라 사무실 혹은 집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춤을 익힐 수 있다.



✉ 조합원 참여 신청안내

노보 소식지에서 '가족사랑의 날' 정시 퇴근이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조합원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을 노보에 소개해 주실 분은 아래 주소로 신청해주시요.

문의 및 참여방법 : 이메일 또는 전화 (KT노동조합 정책실 편집국장 김민수, mabin@kt.com, 031-727-2836)
※ 선정되신 분께는 (극장, 외식 등) 경비를 제공합니다.



K SHOPPING

1등 T-커머스, K쇼핑이 주도한다

K쇼핑의 최대 장점은 소비자를 위한 맞춤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 기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나 가능했던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연간 212%의 급격한 매출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K쇼핑의 성공비결엔 과거 PC통신 시장을 주름잡던 한국PC통신(주)의 깊은 운영 노하우가 숨어있다.

고객의 쇼핑을 TV가 알아서 척척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장인 유 모 과장은 딸 아이의 옷을 고르기 위해 TV를 켰다. 20여 가지가 넘는 쇼핑채널을 검색해보지만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상품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드라마를 보던 중 유 과장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면 하단에 송출되는 예쁜 유아용 원피스. 손에 든 리모컨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상을 선택

하고 구매 버튼을 누름으로써 간단하게 쇼핑을 마친다. TV를 틀자마자 내가 원하는 상품이 화면에 송출된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것도 쇼핑채널이 아닌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보여주는 양방향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된 맞춤형 TV 홈쇼핑을 T-커머스라 부른다. T-커머스는 고객이 따로 시간을 내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고객의 구매이력과 소비패턴을 분석해 고객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상품을 소개해주는 맞춤형 쇼핑 서비스다.

시장 점유율 1위로 매출 급성장

지난해 7월 시작된 맞춤형 쇼핑서비스로 K쇼핑의 T-커머스는 이전에 비해 현격히 높은 매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보통 가정, 영유아 보육 가정 그리고 50대 이상 중장년 가정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한 시간에 2회 및 하루에 총 2회씩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 다른 점을 고려해 방송을 송출한 결과, 일반 편성에 비해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1.8% 증가했으며 최근 4개월 동안 월별 구매율 또한 34.5%나 증가했다.

현재 T-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790억 원에서 2015년에 2500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성장했다. 올 2016년에는 더욱 늘어난 7000억 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TV홈쇼핑의 시장 규모가 약 15



조 원 정도로 2014년 대비 2015년에 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비추어 T-커머스 산업이 보이는 급격한 성장세는 앞으로 T-커머스가 홈쇼핑을 대체할 새로운 신 시장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kth 전략기획팀 임현정 차장은 K쇼핑이 T-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나타낸다.

“현재 T-커머스 시장엔 kth를 포함해 10개 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th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T-커머스 기업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kth가 이룬 성과를 확인한 후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홈쇼핑을 운영하는 7개 사업자 또한 kth가 시장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며 T-커머스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T-커머스 시장에서의 눈에 띄는 성장세에 힘입어 kth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1605억 원의 매출과 54억 원의 영업이익, 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kth의 매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K쇼핑 덕분이었다. 2014년 264억 원 매출에 비해 56.4%나 성장한 413억 원의 매출을 2015년에 올렸다. 현재 K쇼핑은 올해 1분기만 12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60%나 급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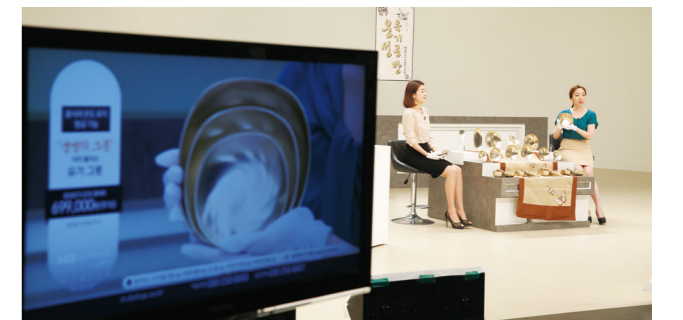
노하우와 시너지의 탄탄한 결합

K쇼핑이 T-커머스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kth가 지닌 뛰어난 기업 역량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kth는 과거 1990년대 PC통신 시장을 주름잡았던 한국PC통신(주)이었다. 과거 PC통신 시절부터 인

터넷시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국내 네트워크 시장과 인터넷 문화를 선도해온 그야말로 '원조 인터넷 기업'이라 할 수 있다. kth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 재화를 유통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콘텐츠 유통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유통 전문업체를 통틀어 디지털 콘텐츠 판권의 최다 보유 사업자의 위상을 기반으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교육 등을 망라하며 국내 T-커머스 분야 최강자의 입지를 과시하고 있다. kth의 이러한 역량은 쇼핑 분야에 그대로 투영되어 실물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임현정 차장도 kth의 그러한 자산이 크나큰 기업경쟁력으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과거 ‘하이텔’과 ‘Paran’은 PC통신과 초기 인터넷 시장을 주름잡던 콘텐츠였습니다. kth는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거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던 노하우와 ICT솔루션 및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T-커머스 시장에서 타사가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랜 역사를 지닌 IT기업으로서의 노하우와 그룹의 인프라 및 시너지를 바탕으로 kth는 앞으로도 T-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T-커머스 솔루션 업체로서 kth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쇼핑호스트 장원 씨 K쇼핑의 새 얼굴로 활력 충전!



리모컨 채널 버튼을 눌러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한 곳에 시선이 꽂힌다. 숯불에 노릇노릇 잘 구워진 한우등심에 군침이 흐르고 구매욕을 자극하는 쇼핑호스트의 맛깔스런 멘트에 황급히 전화기를 찾는다. 제아무리 알뜰 쇼핑족이라도 쇼핑호스트들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 T-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K쇼핑 1기 쇼핑호스트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기부활동가, 쇼핑호스트가 되다

수많은 쇼핑채널이 존재하고 또 그 안에 각기 다양한 개성의 쇼핑호스트들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초창기엔 차분한 음성으로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쇼핑호스트들이 각광받았다. 마치 뉴스를 전하듯 앵커처럼 점잖게 멘트를 읽어주던 쇼핑호스트들도 이제는 각자 개성을 발휘하며 자기만의 매력을 내뿜고 있다. 적극적인 권유형, 차분한 설명형, 소비욕 자극형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한 개성들 중에

서 장원 쇼핑호스트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바로 '진심 호소형'이다.

"쇼핑호스트 일을 하며 기부활동을 겸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다이어트하며 1Kg 빠질 때 마다 1만 원 기부합시다'라는 제안을 SNS에 퍼뜨리고 무료로 운동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현재 독거노인 무료급식, 유기견센터 도우미, 미혼모시설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호스트가 기부활동에 전념한다니 다소 독특한 케이스다. 사실 장원 쇼핑호스트는 소위 언더그라운드(?)에서 기부활동가로 나름 명성을 떨치는 유명인사다. 케이블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자원봉사에 관한 그의 진심을 인정받은 지 오래며, 그의 손길을 통해 기부활동이 벌어지는 곳만 무려 10여 곳이 넘는다. 이처럼 장원 쇼핑호스트의 이력은 얼마 전 K쇼핑에 입사한 쇼핑호스트들의 다양한 스펙 중의 하나다.

K쇼핑의 활력을 불어넣을 새 얼굴들

지난 5월 K쇼핑은 자사의 얼굴을 대표하는 쇼핑호스트들을 공개 채용했다. 개국 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1기 공채에선 신입 13명, 경력 5명 등 모두 18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이한 것은 쇼핑호스트 경력에 있는 5명을 제외하고 신입 13명 대부분이 아나운서, MC, 개그맨, 뮤지컬 가수, 기상 캐스터, 약사, IT 기업 종사자 등 쇼핑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직군 출신이라는 것.

전문 쇼핑호스트가 아닌 다양한 직종의 인재들을 발굴한 것은 K쇼핑이 T-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매출을 더욱 확대시키고 1위 기업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선 더욱 아이디어 넘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인재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장원 쇼핑호스트를 비롯한 18명의 1기 쇼핑호스트들은 K쇼핑을 더욱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인재들임에 틀림없다. 장원 쇼핑호스트는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케이블

및 인터넷 방송을 두루 경험한 방송인으로서 K쇼핑을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알려가고 있다.

"방송 경험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 앞에 서면 여전히 긴장됩니다. 녹화방송이지만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정해진 멘트 없이 애드리브만으로 생방송처럼 씬 없이 한 번에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스태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탈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그 분들 덕에 방송국이 마치 집처럼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쇼핑호스트의 능력이란 바로 얼마나 상품을 잘 파는가에 달려 있다. 감칠맛 나는 멘트를 구사하며 '지금 아니면 절대 못사오라는 무언의 압박(?)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의욕은 금물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선 안 되기 때문이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흔히 '최고', '최장'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저희 K쇼핑에선 엄격한 자체심의를 통해 절대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장어는 정력에 좋다'는 말도 근거가 없는 표현이라 '장어가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정확하게 표현해야 해요. 음식을 마치 약이듯 표현해선 절대로 안 되거든요."

타사에서 간혹 생방송을 통해 '이 상품 최고입니다, 매진되기 전에 얼른 사세요!'라는 쇼핑호스트의 긴박한 멘트도 사실은 심의에 부적합한 표현으로 지양해야 할 방송문화다. K는 소비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일구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장원 쇼핑호스트 역시 K쇼핑을 1등 쇼핑채널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한다.

"K쇼핑을 대표하는 1기 쇼핑호스트로서 더욱 끼를 발휘해 회사의 목표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쇼핑호스트들은 KT라는 커다란 그룹 내에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저희들을 진행자로 불러주시면 사내 분위기도 익히고 회사에 여러 모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찾아주십시오."

입사 2개월 차에 불과하지만 장원 쇼핑호스트는 마치 입사 2년차를 훨씬 넘긴 직원처럼 책임감 넘치는 KT가족의 면모가 읽혀진다. T-커머스 1위를 넘어 전체 쇼핑채널 1위 도약을 위해, 장원 쇼핑호스트를 비롯해 K쇼핑 1기 호스트들이 보여줄 활약이 기대된다.

우리 KT그룹의 K쇼핑!

KT임직원이라면 10% 추가 할인 + 매월 추가 행사

olleh tv 채널 20	skylife 채널 20	SK broadband 채널 47	HYUNDAI 채널 27	T-브로드 채널 29	CJ 엘로버전 채널 25	D'LIVE 채널 25
--------------------------	-------------------------	------------------------------	-------------------------	-----------------------	-------------------------	------------------------

가입방법

1. 전화 가입

전화가입 1899-2211 > 임직원 정보확인 > SMS인증 > 가입완료

2. 홈페이지 가입

kshop.co.kr 회원가입 > 하단 임직원 인증 클릭 > 그룹사 메일 인증 > 가입완료

할인쇼핑방법

방송 보며 전화주문 해도 **10% 추가할인** OK
인터넷, 모바일, 앱 주문해도 **10% 추가할인** OK
가족과 함께 사용해도 **10% 추가할인** OK

Bonus Event

임직원 할인 받고 인증샷 보내면 **5,000원 증정!**
(kshopping@kt.com 으로 보내면 당월 말 쇼핑이용권 문자 발송 / 상세 내용은 전단지 참고)

떠나요 들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지친 배우자를 위한 위로와 휴식 여행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문구에 공감을 느끼곤 했다. 알차고 뜻깊은 안식년 휴가를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여행 시리즈 그 두번째 시간. 일상에 지친 배우자에게 위로와 휴식을 안겨줄 여행을 계획해보자.



낙조 해변 사이를 달리다, 군산 선유도



선유도는 낭만이 깃든 섬이다. '신선이 노니는 섬'이라는 이름처럼 선유도에는 여유와 만족이 넘친다. 섬을 가로지르는 해변에서 여행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낙조를 벗삼아 하룻밤을 보내기도 한다.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섬의 군락이다. 그중 만이로 꼽히는 섬이 선유도다. 선유도로 총칭해서 불리지만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 등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이웃 섬이 됐다. 선유도 봉우리들과 어촌마을들을 둘러보는 구불길 트레킹 코스도 있다. 고군산군도의 섬들이 방파제처럼 둘러쳐 있어 높은 파도가 없으며 썰물 때는 바다 앞에 위치한 숲속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선유도가 품은 최고의 명소는 명사십리 해변이다.

옥도면 선유도리에 있는 천연 해안사구 해수욕장으로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운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선유봉 아래 옥돌 해변은 포구와 어우러진 한가로운 풍경을 자랑한다. 장자도는 낚시,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 체험마을로도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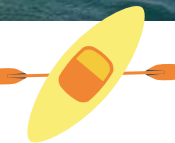
주변에는 아름다운 선유도해변을 가로지르며 주변 풍경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는 선유스카이라인과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는 망주봉을 거쳐 전월리 갈대밭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 몽돌해변, 옥돌해변과도 가깝다. 선유도를 비롯해 거의 모든 섬이 얇은 물과 깨끗한 모래로 이뤄져 있어 해수욕하기에도 좋다.



쪽빛 바다에서 맛보는 짜릿한 해방감, 경남 남해

남해는 '보물섬'으로 불릴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금산 보리암 같은 이름난 사찰을 비롯해 계단식 다랭이논으로 유명한 가천마을, 원시 어업 형태의 고정식 어장인 죽방렴, 오랜 역사가 깃든 물건리 방조어부림 등 가볼만한 곳이 지천이다. 독일마을과 미국마을, 원예예술촌처럼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곳도 있다. 남해구석구석을 생생히 둘러보려면 남해바래길 트레킹을 추천한다. '바래'는 바다가 열리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서 파래나 미역, 고동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남해 토속어다. 바래길을 걷다 보면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따스한 정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남해의 여름을 온몸으로 느끼려면 해양 레포츠를 체험해 보자. 삼동면 물건항에 자리한 남해군요트학교에서는 요트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도 있다. 돛에 의지해 드넓은 바다를 헤쳐 나아가는 기분은 형언하기 힘든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요트가 어렵다면 카약에 도전해보자. 상주면 양아리 두모마을에서는 씨카약을 즐길 수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를 젓다 보면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다. 파도를 넘어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부가 함께 노를 저으면 어느새 부부 간의 정도 더욱 두터워질 것만 같다. 마을 어귀에 조성된 숲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계곡에 울리는 대자연의 합창, 산청 대원사계곡

지리산 대원사 계곡은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경남 산청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피서지다. 계곡을 지키고 있는 큼직한 바위들과 그 사이를 호탕하게 흐르는 맑은 계곡에 머물다 보면 절로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대원사 계곡은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 12km 가량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용소를 비롯해 마음을 씻는 세심대와 몸을 씻는 세신대, 옥녀탕과 선녀탕 등의 명소들이 있다. 지금은 폐교

가 되어 학생수련원으로 바뀐 가랑잎초등학교와 새재마을의 사과 과수원, 무제치기 폭포의 장쾌한 물줄기도 빠트릴 수 없는 볼거리다. 무제치기 폭포는 해발 1000m에 위치한 3단 폭포로, 여러 갈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대원사 계곡에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만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원사 계곡은 부부가 오붓하게 피서를 즐기기도 좋지만 뜨겁고 역동적인 여행에도 인기있는 곳이다. 훌륭한 트레킹 코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대원사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유평마을을 지나, 4km 정도 올라가면 새재마을이 나온다. 여기에서 계곡을 따라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새재 갈림길 나오고 그 곳에서 30분 정도 더 가면, 무제치기 폭포가 나온다. 이 코스로 걸었다면 대원사 계곡 트레킹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 정상까지 오르고 싶다면 이곳에서 치발목 산장과 증봉을 거쳐, 천왕봉까지 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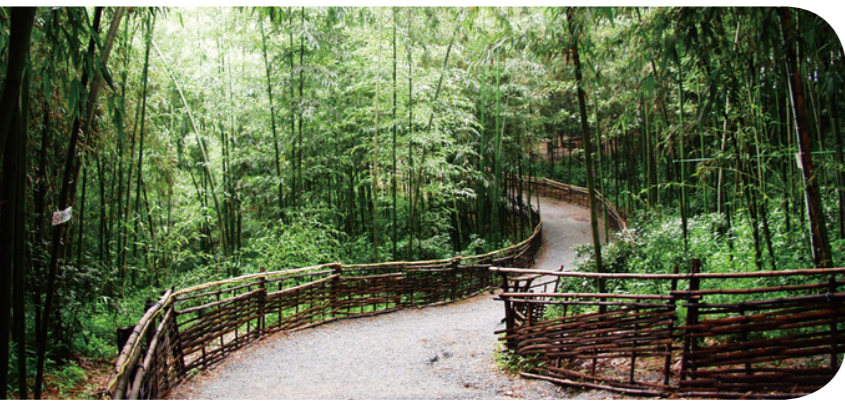
뽀속까지 서늘한 냉풍옥, 충남 보령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새로운 별천지가 있다. 무더위를 한 번에 떨쳐 낼 수 있는 보령 냉풍옥장이다. 지하 수백 미터의 탄광 갱도를 따라 땅속 냉풍이 분출되는데, 이 냉풍을 맞으면 아무리 기승을 부리는 불볕 더위도 단숨에 사라진다.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냉풍옥장 안은 섭씨 12도의 서늘한 바람이 분다.

외부의 기온이 높을수록 분출되는 냉풍은 더욱 시원하다. 약 50m 가량 이어진 통로를 천천히 걸다 보면 한 여름 무더위 대신 뽀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느낄 수 있다. 이 갱도는 1989년 폐광 이후, 냉풍을 이용한 양송이버섯 재배 단지로 활용되고 있다.

보령석탄박물관에서도 냉풍을 체험할 수 있다. 보령석탄박물관은 2층으로 이뤄진 내부전시관과 야외전시관, 그리고 갱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은 모의갱도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모의갱도. 모의 갱도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전시관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관람객이 수직갱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수 엘리베이터다. 램프의 순차적인 점멸과 흔들림, 음향, 공기의 흐름 등 특수효과를 이용해 실제로 지하 400m 까지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마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기분일 정도로 실감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40m에 걸쳐 모의 갱도가 이어지고 모의갱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120m 정도 냉풍터널이 이어진다.



‘싸아아’ 대숲에 부는 바람, 전남 담양

푸르른 싱그러움이 가득한 대나무의 고장 담양은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멋스러운 곳이다. 죽녹원은 담양군 성인산 일대 약 16만㎡에 조성된 울창한 대숲이다. 죽녹원 입구에서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오르면 굳어있던 몸이 느긋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일상에 지쳐있던 심신에 기분좋은 청량감을 불어넣는다. 댓잎이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뽀뽀이 들어선 대나

무 숲길을 걸으면 세상 시름도 절로 잊히는 기분이다. 푸른 댓잎을 통과해 들어오는 햇살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는 기분도 신선하다.

죽녹원에는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철학자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녹원 전망대로부터 산책로가 시작된다. 전망대에서는 영산강의 시원(始原)인 담양천을 비롯해 수령 300년이 넘는 고목들로 조성된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생태전시관, 인공폭포, 생태연못,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밤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대숲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인근에 가마골, 용마루길, 소쇄원 등 운치 있고 내력 깊은 숲도 둘러볼 만하다. 담양 떡갈비와 대통밥, 봄이면 다양한 죽순요리도 맛볼 수 있다. 영산강변에 늘어진 국수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나를 찾는 힐링 여행, 통도사 템플스테이

고요한 산사의 하루를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 세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참자아를 찾는 템플스테이는 색다른 힐링여행이다. 양산 통도사는 영취산 남쪽 기슭을 휘감아 도는 소박한 계곡 안쪽에 자리해 있다.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주변과 어우러진 모습이 고즈넉하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보(三寶)사찰로 꼽힌다. 특히, 부처의 진신사리와 가사가 모셔진 불보(佛寶)사찰로 유명하다. 통도사 템플스테이는 체험형과 휴식형, 개인이나 가족 등 목적과 구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맑고 고요한 산사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에 다가갈 수도 있다. 템플스테이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종교와 문화를 넘어 위로와 평안을 선사한다. 또 사찰순례를 통해 사찰의 구조와 건축, 조각, 공예, 불화, 단청 등 전통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발우공양, 차담(茶談), 참선, 연등 만들기 등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다. 템플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사찰 생활에 따른 일정이 짜여 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사의 하루를 밤을 내딛해보자. 템플스테이 웹사이트(www.templestay.com)에서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다.



Voices of Readers

고객의 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춘천시부 정은진

KT복지에 관한 정보들부터 KT상품소개, 여행정보까지 알차게 꾸며진 소식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계시즌에 맞춰 여행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KT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지도 몰랐는데 이번 소식지를 통해 알게 되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올려주세요.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이임주

금번호의 내용이 모두 알차게 구성되어 있더군요. 다가올 여름휴가를 맞이해 각지역별 해안도로소개와 전경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여행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명 때리의 가치"에 대하여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에 많은 도움 되다니 잠시 동안이라도 명 때리 함 해봐야겠습니다.

강남네트워크운용본부 김진모

노동조합의 소식을 새희망의 길을 통해 잘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대구무선운용센터 황성재

가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새희망의 길 책자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번호에는 GIGA IoT Home에 대한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IoT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공략을 확대해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면 합니다. 미래는 IoT가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지부 김재평

하계휴양시설과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곳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구유선운용센터 권성대

KT의 차세대 동력인 기가 IoT 홈서비스, 가상현실(VR)에 대한 현 주소를 확

인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앞두고 해안도로 여행 및 하계휴양소에 대한 정보도 유익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조합원이 추천한 휴양소 인근 맛집 같은게 실렸으면 여행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서부산지부 김도준

우리나라 어딜 가도 명품 해안도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여섯 해안도로 소개한 "길따라 멋따라"코너를 재미있게 읽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가족, 연인과 같이 멋진 드라이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강남고객본부 부천마케팅부 이상미

현장에 있다 보니 워낙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오고 이슈가 많아 제대로 알지 못했던 kt뉴스를 이렇게 소식지로 받아 읽어보니 잡치 책 보듯이 재미있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소식뿐 아니라 kt위즈파크 꿀팁, 해안도로 여행지 등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 좋았고 2060 셀러리맨 논어에서 길을 묻다라는 공감 코칭 부분은 정말 정독해서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소식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동안 그냥 보고 넘겼었는데 꾸준히 이렇게 소식지를 발행해 주신다면 좀 더 폭 넓은 시각으로 kt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고객본부 사업지원부 이주연

입사3년차 사원입니다. 만화로 보는 청원휴가 사용설명서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만화로 봐서 더 알기 쉬웠고 2060 셀러리맨 논어에서 길을 묻다 보면서 다시 한 번 힘든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고객본부 김덕근

매달 잘 보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됩니다. 계속 행복을 주는 알찬 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KTTU QUIZ

		1																		
												2								
		1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브라질의 주요 항구도시이자 2016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 곳은? (14페이지 참고)

세로 1 고성군 명파리에 설치된 재난/재해경보 보조기능형 디지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은? (22페이지 참고)

세로 2 유무선, 보안, IT 등에서 △다년간의 경력 이상 △근무교과 상위 △전문교육 이수 △사내 자격증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KT 최고의 기술 전문가를 부르는 명칭은? (17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화,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